

전국체전 결산

-전남 12위…4계단 하락

전통 강세종목 초반 탈락 결정타

<궁도·요트·태권도·정구·축구>

사무국 조직도 약해 '예견된 추락'

사격 한국新·수영 4관왕·사이클 종합 우승으로 체면 세워

전남은 제8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12위로 지난해 보다 4계단이나 추락했다.

전남은 41개 종목에 선수단을 파견해 선전을 펼쳤으나 3만5천112점을 획득해 지난해 보다 2천668점을 잃었다.

전남의 추락은 예견 된 상황.

지난 강진 도민체전 사고 이후 사무국 조직정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대로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일사불란한 조직력을 갖추지 못해 성적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또한 전통 강세종목인 궁도, 요트, 태권도, 정구가 부진을 면치 못했으며 광양제철과 축구 등 12개 팀이 입상을 기대했으나 대진 불운으로 강팀과 초반에 만나 탈락, 추락을 부채질했다.

여기에는 육상, 레슬링, 승마 등 전남 출신 재경선수들의 경기력이 저조한 것도 득점 획득에 차질을 끼쳤다.

하지만 전남은 검도와 골프, 펜싱, 세파타크로, 배구, 체조, 사격, 보디빌딩, 수중 등 12종목에서 지난해 보다 성적이 향상됐으며 수영, 야구, 탁구, 복싱, 배드민턴, 스쿼시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이외에 정윤균(상무)이 사격 남자 일반 더블트랩에서 한국신기록을 작성해 체면을 세웠으며 수영, 육상, 양궁, 인라인롤러에서 대회신기록 7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제는(전남체일고)은 수영 여고부에서 4관왕에 올랐으며 나아름(미용고), 노효성(나주시청)은 사이클에서, 정다래(부여여고)는 수영에서 각각 3관왕에 올랐다.

특히 사이클은 지난 2004년 전국체전에서 종합우승을 이룬 이후 3년만에 종합 1위를 기록하며 2천288점을 전남에 선물했다. 하기도 종합3위로 1천500여점을 전남에 보탰다.

내년 전국체전 개최지인 전남은 올 체전의 실패를 거울삼아 우수선수 확보와 이번 체전 광주시의 종합3위 사례를 모델로 삼아 전력향상을 이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젖 먹던 힘까지 다해

16일 오후 충주 탄금호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2007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남자 무타페어경기에서 선수들이 힘차게 물살을 가르고 있다. /연합뉴스

호랑이 굴 '감원 태풍' 분다

“나 지금 떨고있니?”

올 시즌 '꼴찌'팀 프로야구 KIA타이거즈가 단장교체에 이어 감독 등 코치진의 대규모 구조조정설로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포스트 시즌이 한창인 요즘 KIA구단은 코치 A씨 등의 이름을 포함한 살생부가 나돌면서 내년 시즌을 준비중인 코치진은 물론 선수들마저 훈련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16일 KIA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구단 고위층에서 20명에 이르는 코치진을 현실적인 수치에 맞게 조정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KIA의 코치는 21명(육성군 포함)으로 삼성보다 3명이나 많고, 선수들도 63명(삼성 61명)으로 8개 구단 중 1위이다.

타 구단에 비해 평균 5~6명 정도가 많은 숫자다. 따라서 내년 시즌 코치총원이 15명 이하로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 정재공 전 KIA 단장의 교체에 따른 서정환 감독의 경질설도 무성하다. 하지만 내년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데다 별

'코치진 대폭 줄여라' 지침

현 21명 중 5~6명 줄일 듯

서정환 감독 경질설도 무성

다른 대안도 없는 만큼 서 감독의 유임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지난 시즌 4강 입성을 이뤄냈던 서 감독이 올 시즌 '꼴찌' 감독으로 추락했지만, 시즌 초부터 밭복을 입은 주력 선수들의 출부상 탓이 커지고, 이러한 책임을 그에게 모두 돌리기는 어렵다는 여론 때문이다.

또 서 감독이 그동안 꾸준한 신인 선수 발굴을 통해 팀의 세대교체를 이뤄냈다는 점도 그의 유임설에 힘을 보태고 있다.

KIA구단 한 관계자는 "팀이 이제 안정적인 쾌도로 진입한 상태다. 여기서 다시 흔들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면서 "타선에선 이웅규, 이현근, 장성호, 최희섭 등이 시즌 막판 맹활약하고, 신인들도 급성장하고 있다. 마운드도 용병 투수만 보강한다면 내년 시즌은 충분히 해 볼만 하다"며 대규모

구조조정을 경계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한대화 삼성 수석코치, 이순철 전 LG 감독, 차영희, 김종모, 조범현 코치(이상 KIA) 등이 후임 감독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광주 첫 '토박이' 감독을 선임해야 한다는 여론도 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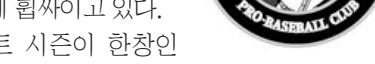
단장이 바뀐 만큼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감독을 포함한 일부 코치진의 교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김조호 신임 단장은 이날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선수단과 상경에도 갖지 못했다. 업무 과악이 우선이고, 아직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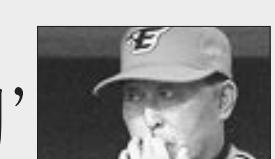
을 밝히면서도 "선임 당시 조남홍 구단 사장으로부터 최하위로 추락하게 된 원인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고 최근 보고서를 올렸다"고 말했다.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그는 "코치진 내부의 문제점과 개선책, 그리고 감독에 대한 유임 또는 교체 방안 등 다양한 분석 자료를 담았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감독 문제 등 쌓여있는 현안을 해결하겠다. 그 시기는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 초가 될 것"이라며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한화 김인식 '묘책찾기'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김 감독은 2차전 패배 후 "문동환은 더 이상 기용했다가 선수 생명이 끊길 위기를 느낄 정도여서 쓸 수도 없고 김 해님은 패전처리 정도"라고 말했다.

한화는 문동환, 김해님을 포함,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마운드를 10명으로 꾸렸다.

이 중 선발급 류현진, 정민철, 세드리 바위스를 빼면 불펜은 7명. 그러나 김 감독의 말처럼 문동환과 김해님은 박빙 상황에 투입할 수 없어 나을만한 투수는 5명으로 줄어든다.

9명으로 구성됐으나 원투 펀치 다니엘 리오스, 맥 랜들을 제외하고 7명 전원을 총동원할 수 있는 두산에 힘에서 밀린다.

한화의 더 큰 문제는 역전의 밤관을 마련할 수 있는 믿을만한 통밀리프가 1, 2차전에서도 투입된 유원상 뿐이라는 점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7일(수)

▲메이저리그 AL 챔피언십 시리즈 4차전<보스턴 : 클리블랜드>(08 : 50 : Xports)

▲2010월드컵 남미예선<베네수엘라 : 아르헨티나>(09 : 30 : SBS스포츠)

▲전국유소년축구대회 준결승(14 : 00 : Xports)

18일(목)

▲유로 2008 예선<스웨덴 : 북아일랜드>(03 : 20 : SBS스포츠)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3차전<두산 : 한화>(18 : 00 : SBS)

▲올림픽 축구 아시아 최종예선<한국 : 시리아>(21 : 50 : KBS2-SBS스포츠-Xports)

18일(목)

▲유로 2008 예선<스웨덴 : 북아일랜드>(03 : 20 : MBCESPN)

▲그랜드슬램 골프(06 : 00 : MBCESPN)

Kwangju Ilbo

문화·신뢰·교양이 있는 신문
격동의 현대사를 지목은 즐긴문화·신뢰·교양이 있는 신문
격동의 현대사를 지목은 즐긴문화·신뢰·교양이 있는 신문
격동의 현대사를 지목은 즐긴문화·신뢰·교양이 있는 신문
격동의 현대사를 지목은 즐긴

광주일보는 신뢰·교양·문화를 지향하는 신문입니다.